



사순 제1주일(2월 18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마르 1,12-15)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예수

예수님을 유혹하는 악마의 모습과 유혹자에게 호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밝음과 어두움으로 대비된다. 유혹자는 험상궂은 얼굴로 오른손을 뻗어 산 아래 도시들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유혹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위엄 있는 표정으로 한 손은 겹옷을 잡고 또 한 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서 악마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외치신다. 이런 모습에서 성스러우면서도 강렬한 힘이 드러나며 반대로 악마는 험상궂은 표정이지만, 가련하고 나약하며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으로 이제껏 예수님을 유혹하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그림 두초 | 1308-1311년, 나무에 템페라, 프리 컬렉션, 미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2번 “구원의 십자가”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 빛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2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마르 1,13)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섬으로써 내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극심한 고통과 유혹을 겪으시는 순간에도 주위의 것들에 적대심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물리치십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더 큰 선으로 그 악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동물적인 공격성과 적대심이 있다면 악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마음을 떠올리고 그 선으로 악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며 더 큰 선을 행할 힘과 은총을 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2번 “구원의 십자가”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